

차량 5부제 참여하면 보험료 돌려준다… 내달부터 신청

당정, 고유가·에너지 불안 대응
특약 가입시 연 2% 보험료 할인
가입 범위 1톤 이하 화물차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손해보험업계가 할인 특약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중동사태 장기화 우려에 따른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려는 방안으로, 특약 가입자에게 연 2%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외교부 등과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개회의의 모듬발언에서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공급과 국제 유가가 회복되는 등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지난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시행했고, 민간 부문에서는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5부제에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4차회의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당정은 고유가 시대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오는 5월부터 개인용 차량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가입’ 신청을 개시하고 4월 이후부터 할인 혜택을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과

별도로 영세 차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할인 특약 대상을 영업용 1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도 특위 회의 후 손보업계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 방향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연 2%의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된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할인 금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도 지원한다. 서민우대 할인 특약의 가입 범위를 1톤 이하 화물차까지 넓히는 방안이다.

이 회장은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이 한시적인 상품인지에 대해 “특별한 상황에 대비해 도입되는 것”이라며 “상황이 안정되면 기존의 마일리지 특약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출 현황 및 대응 방안, 석유업계 수입 지원 문제 등도 점검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위 간사를 맡고있는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유는 5월 필요한 물량의 80%를 확보했다”며 “국내 소비 절감 등의 노력을 포함하면 5월 중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대체 물량 확보 노력은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프타 가격은 100%까지 올랐다가 72% 수준으로 낮아졌고, 연말까지 나프타 210만톤을 확보했다”며 “당장 급한 5월분은 예년 대비 85~90%가 확보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량용 요소수 재고는 3개월분을 확보했다”며 “일부 기업에 요소수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지난 23일부터 재고 부족 기업을 대상으로 방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정산하기 위한 ‘정산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업계가 손실분을 확정하고 회계법인에서 검증한 후 산업부가 손실분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아스팔트 등 건설자재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민간 수급협체제를 통해 시급한 건설 현장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박성수 인턴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하정우 사의 표명 임박… 국회 입성 초읽기

부산 북갑 재보궐 출마 예정
민주당, 이르면 내일 영입식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다.

27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하정우 수석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데미스 하사서비스 구글 딥마인드 대표 접견 일정을 수행한 후, 28일 사의를 표명하고 부산 북갑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수석이 사퇴하면 곧바로 인재영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29일 영입식을 열고, 곧바로 전략공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부터는 사실상 연휴나마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찬가지이므로 빠르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하 수석은 전날(2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출마를 논의했다.

정 대표는 적극적으로 출마를 요청했고, 하 수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에서 열린 현장최고위 이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26일)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을 마치고 서울에서 하정우 수석과 저녁식사를 했다”면서 “하수석에게 AI 3대 강국 설계자이니, 국회에 와서 입법으로 완성하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하 수석을 만나보니 보자마자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컴퓨터 공학도로서 세상만사에도 참 관심이 많은 착한 천재였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애정도 많았다. 그래서 더욱 탐이 났다”고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

우원식 “국힘, 개헌안 투표 막지 말라”

(국회의장)

“개헌 무산되면 책임져야 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연계’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회 개헌안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되면 그 모든 책임 역시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는 5월 7일 제10차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열릴 앞으로 다가왔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어 “개헌은 찬성하지만 지방선거

와 함께하는 건 안 된다면, 언제 하지는 것인가”라며 “공직선거와 동시에 해야 투표율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뻔히 알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선거에 맞춰 하면 ‘개헌 블랙홀’이 된다는 주장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개헌 내용에 찬반 논란이 없는데 블랙홀이 대체 어디서 생긴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 임기에 관해서는 “헌법 제128조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런데도) 왜 이렇게 끝까지 당론으로 막고 있을까 의문”이라며 “혹자는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 어게인’ 아닐까 반문한다”고 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李-하사비스, AI 국제규범 필요 ‘공감대’

>> 1면 ‘李 ‘알파고 아버지’서 계속

또한 “이런 협력들은 AI 시대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표이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를 대체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길이기도 하다”고 면담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AI에 관심도 많고 국가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는데 제대로 인류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또는 인류 평화를 해치는 방향으로 갈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하사비스 대표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말씀해 주셨다”며 “AI가 과학의 증진과 또 의료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전 세계 인류에게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알파고를 통해 저희는 기술에 대한 검증할 수가 있었다. 바둑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더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초가 되는 게 알파고였다고 생각한다”며 “이 배움을 과학과 의료 분야로 확대해 나가야 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질병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알파폴드의 개발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AI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 통제 규범이나 표준이 필요한데, 이것이 매우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사비스 대표도 이에 공감

하며 “민간부문 경쟁과 미중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규범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며 “한국·영국·싱가포르가 협력해 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정부와 민간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제미니AI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저도 제미니를 자주 사용하는데 가끔 시키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한다. 일종의 버그(착오)인가”고 묻기도 했다. 그러자 하사비스 대표는 “과운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이 저희가 내놓는 지침이 정확하지 않으면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그래서 AI를 사용하고 또 개발할 때 가드레일이라고 불리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탑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예진 기자

오세훈, 선거운동 돌입… 보신각서 첫 유세

“이 정부 독주 좌시하지 않겠다”

6·3 지방선거의 서울시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섰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캠프 사무실이 위치한 보신각까지 시민들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예비후보로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경쟁했던 박수민 의원이 함께했다.

오 시장은 도보 이동을 마친 후 보신각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더 이상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어렵게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 완성으로 완수해내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도약의 위에서 다시 한번 ‘점핑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더 건강한 서울, 더 따뜻한 서울,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호소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